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촉구결의안

(추선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701
----------	------

발의연월일: 2024년 월 일
발 의 자: 추선미, 안광림, 황금석, 박은미,
서희경, 안극수, 서은경, 박종각,
박경희, 김종환 (이상 10명)

☐ 제안이유

- 요양보호사들의 높은 강도의 업무와 자격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상황을 알리고, 임금 수준과 처우 개선을 촉구함.

☐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고용관계 및 낮은 임금 체계 등에 따라 노인돌봄의 가치가 퇴색되고,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일선에서 근무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최소한의 권리대책 마련을 위해 임금이이드라인 및 정책 법안 및 예산 정비를 통해 처우 개선을 촉구함.

☐ 결의문(안) : 별도 붙임.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국회, 보건복지부
- 붙 임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촉구결의안 1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촉구결의안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80시간, 총 320시간의 필수교육을 이수 한 후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해 국가자격을 취득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 ‘요양보호사’이며, 이들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이다.

노인 돌봄의 최전선인 요양보호사의 일의 가치와 강도 및 필요성은 최저임금으로 교환될 수 없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겪고 독립적인 일상 활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 청결 유지, 식사 및 약물 복용 보조, 배설 관리, 운동 지원, 정서적 도움, 환경 조성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구체적 도움을 준다.

이는 단순히 신체를 돌보는 것을 넘어 노인성 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헌신적인 노력인 것이다.

2024년 9월 기준, 60대 인구는 처음으로 40대 인구를 넘어섰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에 20%를 초과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대우로 인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타 업종으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요양보호자격자 대비 등록자 비율은 약25%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약 4분의 1 만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요양보호사로 근무자 중 92.7%가 50세 이상이며, 계약직이 72.4%이다. 이는 같은 장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의 정규직 비율이 평균 84.9%인 것과 비교된다.

한편 요양보호사 평균 임금은 월 약 203만원으로, 사회복지직 평균 임금보다 약 15%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임금가이드 라인은 요양보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시설 유형별 인건비 지출 총 비율만 정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에게는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현재 임금수준은 제공하고 있는 높은 강도의 돌봄 서비스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 어렵고, 낮은 근속기간과 높은 이직률 및 이탈의 원인이 된다.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무에 종사하기 힘든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며, 국가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기적,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크다.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및 처우가 개선되면, 요양보호사들은 더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직무 만족도가 상승하고, 더 높은 질의 돌봄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업무는 국가적 의무이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국가적 책무이다.

이에 성남시의원들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귀중한 돌봄 인력으로서 존중받고 안정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요양보호사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

하나. 안정적인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법안 및 제도, 예산을 정비하라.

2024. . .

성 남 시 의 회